

2026. 4.

미국 상원, 「저작권 표시 및 윤리적 AI 통지 법안(CLEAR Act)」 발의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연구팀 연구원
손휘용

1. 개요

애덤 쉬프(Adam B. Schiff) 및 존 커티스(John Curtis) 美 상원의원은 2026년 2월 10일 「저작권 표시 및 윤리적 AI 통지 법안」(S.3813 - Copyright Labeling and Ethical AI Reporting Act, 이하 'CLEAR Act' 또는 '법안')¹⁾을 발의하였다. 본 법안은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²⁾

현행 제도하에서는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침해 주장이나 이용허락 협상 등 실질적 권리 행사가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법안은 AI 학습 과정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데이터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반 시 권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2. 주요내용

1) 통지 의무 부과

법안은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 및 출시(release)를 위하여 데이터세트를 사용하는 자에게 저작권청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한다. 통지서에는 해당 데이터세트에 포함된 각 저작물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sufficiently detailed summary)'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세트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은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저작권청이 통지서의 형식, 내용,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적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2) 통지 기한

1) Copyright Labeling and Ethical AI Reporting Act(CLEAR Act), S.3813(<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3813>).

2) 'NEWS: Sens. Schiff, Curtis Introduce Bipartisan Bill to Protect Creators' Work, Implement Transparency Safeguards in AI Model Development', Adam Schiff, 2026. 2. 11. (<https://www.schiff.senate.gov/news/press-releases/news-sens-schiff-curtis-introduce-bipartisan-bill-to-protect-creators-work-implement-transparency-safeguards-in-ai-model-development/>).

통지 의무는 AI 모델이 상업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이는 모델 출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학습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이거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구조이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용·출시된 모델의 경우에는 저작권청이 세부 규정을 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모델 역시 제도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3) 집행 및 제재 규정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는 연방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안은 이용 건당 최소 5,000달러 이상(연간 총액 250만 달러 미만)의 민사적 제재(civil penalty)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통지서가 제출될 때까지 저작물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배상도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단순 행정상의 의무에 그치지 않고, 사법적 구제 수단을 병행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설계로 평가된다.

4) 공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안은 저작권청이 제출된 통지서를 포함하는 공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구나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CLEAR Act는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통지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학습데이터의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입법적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공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AI 학습을 둘러싼 정보 비대칭 구조를 완화하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IAA, SAG-AFTRA, ASCAP, Authors Guild 등 주요 권리자 단체들은 본 법안을 AI 학습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보상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하며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³⁾ 향후 법안의 입법 여부에 따라, AI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국제적 규범 논의에도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3) "WHAT THEY'RE SAYING: Creators Praise Sens. Schiff and Curtis' Bipartisan CLEAR Act to Implement Transparency Safeguards in AI Model Development", Adam Schiff, 2026. 2. 11. (<https://www.schiff.senate.gov/news/press-releases/what-theyre-saying-creators-praise-sens-schiff-and-curtis-bipartisan-clear-act-to-implement-transparency-safeguards-in-ai-model-development/>).

참고자료

- Copyright Labeling and Ethical AI Reporting Act(CLEAR Act), S.3813(<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3813>).
- ‘NEWS: Sens. Schiff, Curtis Introduce Bipartisan Bill to Protect Creators’ Work, Implement Transparency Safeguards in AI Model Development’, Adam Schiff, 2026. 2. 11. (<https://www.schiff.senate.gov/news/press-releases/news-sens-schiff-curtis-introduce-bipartisan-bill-to-protect-creators-work-implement-transparency-safeguards-in-ai-model-development/>).
- “WHAT THEY’RE SAYING: Creators Praise Sens. Schiff and Curtis’ Bipartisan CLEAR Act to Implement Transparency Safeguards in AI Model Development”, Adam Schiff, 2026. 2. 11. (<https://www.schiff.senate.gov/news/press-releases/what-theyre-saying-creators-praise-sens-schiff-and-curtis-bipartisan-clear-act-to-implement-transparency-safeguards-in-ai-model-development/>).